

# 코로나 입원 트럼프 외출에 비난 쇄도

### 차타고 지지자들 격려 "14일 격리 안지켜" 지적 동승 경호원들까지 위협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병원 밖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잠시 '깜짝 외출'하는 돌출행동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준수사항을 어긴 데다 동승한 경호원들을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이 입원한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월터 리드 군병원 밖에서 패유를 기원하며 모인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병원 밖으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쓴 채 뒷좌석에 앉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든 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새벽 자신과 부인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오후 늦게 월터 리드 군병원에 입원해 3일째 병원 생활 중이다. 이번 외출은 자신이 소셜 미디어 동영상에서 '깜짝 방문'을 하겠다고 말한 직후 이뤄졌다.

병원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치유를 기원하며 지지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트위터에서 지지자들의 영상을 리트윗하며 "매우 고맙다"고 적었고, 오후에도 "병원 밖 모든 팬과 지지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 방문 전 울린 73초짜리 별도 영상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여행이었다"며 "나는 코로나19에 대해 많이 배웠다"라고 말

했다. 그는 또 "이것은 진정한 학교"라며 학교에서 '책을 읽자' 식의 배움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뒤 "나는 그것을 알게 됐고 이해하게 됐다. 정말 흥미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병원 밖 지지자들을 향해 "위대한 애국자"라고 추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은 3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앞두고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지만, 곧바로 보건 전문가와 언론의 강한 비난을

불러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안전에 관한 즉각적인 우려와 분노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14일 간 격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전염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차량에 함께 탄 경호원들의 생명을 위협한 행위라는 비판이 빚졌다. 당시 차량에는 비밀경호국(SS) 요원 2명이 탑승했

고,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월터 리드 병원의 내과의사인 제임스 필립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미친 짓"이라며 "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은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그들은 병에 걸리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혹평했다. 조너선 라이너 조지워싱턴대 교수도 "무책임함의 극치"라며 "병원밖의 즐거움 드라이브를 함으로써 경호원을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 리드 군 병원 밖으로 차를 타고 나와 지지자들 앞을 지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251> 원호문

원호문(元好問, 1190-1257)의 자는 유지(裕之), 호는 유산산인(遺山山人)으로 산서성 태원 출신이다. 도연명·두보·소식·황정건의 시풍을 계승한 금나라의 대표 시인이다. 특히 시성 두보의 시에 조예가 깊었다고 평가된다.

원호문의 선조는 선비족 탁발씨로 북위 효문제때 산서성 평성(현 대동시)에서 남쪽인 하남성 낙양으로 이주했다. 효문제가 적극 추진한 한화(漢化) 정책에 따라 성을 원씨로 바꾸었다 고 한다. 부친 원덕명은 여러번 과거에 낙방 후 고향에서 시를 짓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원호문은 아들이 없는 숙부 원격의 양자로 들어갔다. 어려서부터 총명해 '신동' 소리를 들었다. 시문, 경

었다. 1214년에는 몽고의 징기스칸이 직접 대군을 몰고 남하하기도 했다. 이 싸움에서 형 원호고가 전사했다. 이즈음 자은 시에 석령관 소견(石陵關所見)이 있다. 전쟁터의 상흔을 보여준 청년기의 작품이다.

8대 황제 선종은 수도 변경에서 변경으로 전도했다. 남침 결정은 하북, 산서에서 사는 주민들에게 금양조가 이들 지역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군인 가족도 대거 이주시켰다. 몽고군이 갑자기 서역 원정을 가는 바람에 한동안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징기스칸의 뒤를 이은 오고타이가 1232년 남송과 협력하여 다시 변경을 포위했다. 그 전해 부인 장씨를 잃었다. 섬서의 봉상으로 태어난 원호문은 아들이 없는 숙부 원격의 양자로 들어갔다. 어려서부터 총명해 '신동' 소리를 들었다. 시문, 경

### 도연명·두보 시풍 계승한 금나라 대표시인

전, 역사, 제가백가서를 두루 공부했다. 16세부터 과거에 응시했으나 계속 떨어졌다. 고향에서 떨어진 유산에서 공부했는데 이런 이유로 호를 유산산인으로 정했다.

선종 흥종 5년(1221년) 32세의 늦은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했다. 그러나 당파 싸움에 연루되어 3년뒤에야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유림장, 국사원 편수를 거쳐 진평, 남양, 내향 협령을 지냈다. 1225년 잠시 관직을 휴직하고 두보의 시를 다룬 두시학(杜詩學)을 저술했다. 1234년 금나라 수도 변경(현 개봉시)이 몽고에 함락되고 금양조는 멸망했다. 몽고는 그를 체포해 산둥성 요성에 유배시켰는데 2년 후 풀려났다. 1239년 몽고의 쿠빌라이가 그를 자신으로 기용하려 하였으나 관직을 거부하고 낙향했다. 1257년 68세로 세상을 떠날때까지 약 20년간 시를 짓고 책을 쓰는 선비의 삶으로 일관했다.

그는 한족이었지만 이민족인 금나라에서 태어나 관직생활을 했다. 금나라가 중국문학의 정통을 계승했다는 인식이 강했다. 북위 선비 탁발씨 후손인 것이 크게 작용했던 듯하다. 선조중에는 당대의 유명 시인 원결(元結)이 있다. 이런 연유로 금에 대한 저항 의식이 적었다. 부친의 임지를 따라 산둥·산서 등지로 옮겨 살았다. 부친 사망 후 고향에서 복상 중 몽고족의 침공이 있

원외량으로 최립의 공적비를 쓴 것으로 명예가 실추되었다. 금양조의 마지막 황제 예제는 채주로 달아났다. 1234년 몽고와 남송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예제는 자살하고 왕조는 120년만에 멸망했다.

원호문은 문인으로서 금나라 문학을 계승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했다. 금나라 당대의 시집을 편찬했으나 유명편수를 거쳐 진평, 남양, 내향 협령을 지냈다. 1225년 잠시 관직을 휴직하고 두보의 시를 다룬 두시학(杜詩學)을 저술했다. 1234년 금나라 수도 변경(현 개봉시)이 몽고에 함락되고 금양조는 멸망했다. 몽고는 그를 체포해 산둥성 요성에 유배시켰는데 2년 후 풀려났다. 1239년 몽고의 쿠빌라이가 그를 자신으로 기용하려 하였으나 관직을 거부하고 낙향했다. 1257년 68세로 세상을 떠날때까지 약 20년간 시를 짓고 책을 쓰는 선비의 삶으로 일관했다.

그는 한족이었지만 이민족인 금나라에서 태어나 관직생활을 했다. 금나라가 중국문학의 정통을 계승했다는 인식이 강했다. 북위 선비 탁발씨 후손인 것이 크게 작용했던 듯하다. 선조중에는 당대의 유명 시인 원결(元結)이 있다. 이런 연유로 금에 대한 저항 의식이 적었다. 부친의 임지를 따라 산둥·산서 등지로 옮겨 살았다. 부친 사망 후 고향에서 복상 중 몽고족의 침공이 있

원호문은 북방 문학의 거두였으며 금나라에서 원나라로 문학이 계승되는 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다. 후일 일대문종(一大文宗)으로 평가받았다. 시뿐만 아니라 사(詞), 곡(曲)에도 모두 뛰어났다.

### 유럽 코로나 재확산...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

#### 하루 영 1만3천명·프 1만7천명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재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지난 3일(현지시간) 신규 확진자수는 1만2872명으로 최근 1주간 평균의 2배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CNN방송이 4일 전했다. 영국 정부는 전주 집계되지 않았던 이들이 포함되면서 일시적으로 확진자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BBC방송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힘든 겨울이 될 수 있다"면서 "크리스마스까지 꼭 순탄치 않을 것이고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48만17명, 사

망자수는 4만2천317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다.

다른 국가들도 암울한 기록을 세우고 있다.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ECDC)의 주간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유럽의 코로나19 사망률은 10만명당 113.6명으로 70일째 상승하고 있다. 프랑스의 3일 기준 신규확진자수는 1만6972명으로 전주의 최대기록(1만6096명)을 경신했다.

폴란드는 같은 날 기준 신규확진자수가 2367명에 달해 3일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탈리아는 2844명을 기록, 지난 4월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독일의 경우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현재와 같이 감염이 확산하면, 연말께 하루 신규확진자가 1만9000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 미국, 사드-패트리엇 통합 요격시험 성공

#### "한반도 내 운용상 필요 따른 것"

미국이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 미사일의 통합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이 밝혔다.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MDA의 성명을 인용, 미국 미사일방어청 및 육군이 지난 1일 사드 체계와 함께 통합된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를 활용한 시험에서 표적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멕시코주(州) 화이트샌즈 미사일 발사장에서 한 시험에서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블랙 대거(Black Dagger) 표적용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해 이 정보를 패트리엇 체계에 전달했고, 패트리엇 발사 체계는 PAC-3 미사일을 배치,

표적을 파괴했다. 이번 시험에 사용된 사드 레이더는 경북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 통제 레이더와 같은 기종으로 알려졌다.

존 힐 미사일방어장정은 성명에서 "이러한 능력은 불량한 위협들로부터 우리의 본토와 해외 주둔 병력, 동맹국들 방어를 위한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공은 지난 2월 한차례의 실패에 이은 것이라고 디펜스 뉴스가 전했다.

미국 육군의 패트리엇 및 사드 체계 통합 작업은 한반도 내 긴급한 운용상 필요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고 디펜스 뉴스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통합 요격 시험 성공으로 주한미군 사드 업그레이드 작업의 핵심으로 알려진 사드와 패트리엇(PAC-3)체계 통합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 名작작名명

## 광화문父子작명가

###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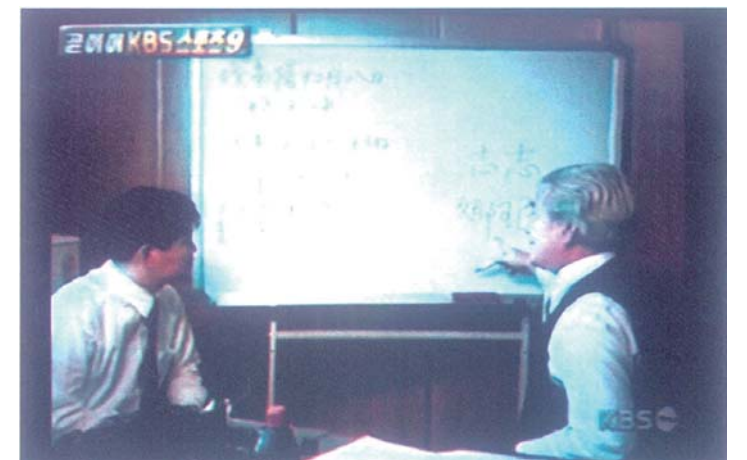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작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